

6/27/21

설교 제목: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6 장 1-30 절

(출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 6: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 6:4)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출 6: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출 6:7)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 6: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출 6: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 6: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6: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출 6: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출 6: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출 6:14)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출 6:15)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출 6: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일백 삼십 칠세이었으며

(출 6: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출 6: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일백삼십삼 세이었으며

(출 6:19)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출 6:20)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일백삼십칠 세이었으며

(출 6:21)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벅과 시그리요

(출 6:22) 웃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출 6:23)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출 6:24) 고라의 아들은 앓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출 6: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출 6:26)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 6: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 6: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출 6: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출 6: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근거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방편으로 '구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대신 고역과 핍박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간구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출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미 거기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출 3:19)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출 3: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바로가 당신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애굽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등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완악해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를 죽이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두손 두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벧전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벧전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십니다.

(출 6: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 6:4)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출 6: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출 6:7)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 6: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한 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당신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이 언약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요 14: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본질을 보며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분이 야곱의 자손에서 바로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본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의 자손이었으나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과 구속 사역의 목적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당신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출 29: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출 29:46)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22:23)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레 26: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 26: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관계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너희 아버지, 나의 자녀'로 발전됩니다.

(딤후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신구약을 통하여 이루어오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계 21:4)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본문의 말씀 곧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 6: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안타깝고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어 생똥맞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출 6:14)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출 6:15)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출 6: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일백 삼십 칠세이었으며

(출 6: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출 6: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일백삼십삼 세이었으며

(출 6:19)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출 6:20) 아르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르람의 수는 일백삼십칠 세이었으며

(출 6:21)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벅과 시그리요

(출 6:22) 웃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출 6:23)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출 6:24) 고라의 아들은 맛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출 6: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출 6:26)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 6: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시점에서 모세의 족보를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빼내는 일입니다.

복음서 첫 책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전 그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이 모세도 사역을 감당하기 전 그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출 6:26)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 6: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 6: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출 6: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출 6: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당신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말재주가 없다고 전하길 주저합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그로 하여금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 19:10)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여 눈치를 보고 주저하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눅 12:11)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눅 12: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이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딤후 4: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딤후 4: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딤후 4: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명 감당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